

#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 혼합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의 활용

진 선 미  
(연세대학교)

강 은 나\*  
(연세대학교)

장 용 석  
(연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제1차년도(2006년)부터 제4차년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지스틱 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 형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형태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 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비정규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상용직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이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비정규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혼 여성의 고용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용어: 사회서비스 지속성, 경제활동참여, 고용형태, 패널로지스틱 분석,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 교신저자: 강은나, 연세대학교(keunna@hanmail.net)

■ 투고일: 2011.6.14 ■ 수정일: 2011.8.29 ■ 게재확정일: 2011.9.5

## I. 서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여성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러한 증가는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의 참가율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황수경, 2003; 홍정립, 2009).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49.8%에 이르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47.1%까지 일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탈, 2011).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미래 성장잠재력 훼손, 그리고 재정불안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차원의 요구에 기인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사부담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가지는 재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오은진 외, 2008). 따라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여성친화적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는 여성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과 연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은 남성보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화, 성별 임금격차, 경력단절로 인한 M자형 노동시장 참여패턴의 유지, 고학력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옥, 2007; 주무현·강민정, 2008; 전은주·유홍준, 2009). 따라서 여성노동력 공급구조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 및 가족 관련 사회서비스의 도입과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고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먼저,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여성친화적 고용정책 등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통합에 기여해왔는지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늘어난 일자리는 주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와 같은 저숙련, 저학력, 저임금 직종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점철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현실(김영옥, 2007; 최성은·우석진, 2009)에서 여성의 고용을 촉진시키

기 위한 사회서비스와 기혼여성 취업형태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 두 번째 연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서비스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김현미, 2005; 최성은·우석진, 2009; 주보혜, 2010; Stadelmann-Steffen, 2008) 첫째,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보육료 지원 혹은 보육서비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김현미, 2005; 최성은·우석진, 2009).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화 정책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탈가족화 정책에서 파생된 사회서비스는 비단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을 통한 가정봉사서비스, 아이돌보미사업, 아동사업, 문화여가사업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보육서비스로 한정하여 협소하게 다루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문헌들은 주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Boca, Pasqua, & Proznato, 2009).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이용기간이나 지속기간과 같은 시간적 지속성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최성은·우석진, 2009). 사회서비스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계열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한 횡단연구를 통해서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는 일정부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서비스 이용에 초점을 두어 사회서비스를 보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아동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급식, 문화여가, 가사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가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의 지속성이 기혼여성 취업 및 취업의 질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아동 및 가족서비스가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노동공급을 제고하였는지 검증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특정 취업형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혼 여성의 고용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혼여성 경제활동참여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사회적 보호, 사회적 돌봄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으며, 아직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 및 교육서비스, 주택, 보건, 고용, 여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영역으로 이해된다(장원봉, 2010).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져 왔으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 상부상조와 이타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제공되어진다는 점,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인간간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목적을 둔 활동이라는 점 등이 공통점으로 제시되고 있다(정경희 외, 2006). 그리고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의 측면이 강한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따른다는 특성을 보인다(김은정, 200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사회전체가 아닌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의 지속성(continuity)을 강조한다는 측면이 공공서비스와의 차별성으로 제시되고 있다(EC, 2007; 김은정, 2008 재인용).

사회서비스 전달의 기본원칙으로 전문성, 포괄성,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성규탁, 1993; 최성재·남기민, 2008), 이 중 지속성의 원칙은 서비스 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연속적이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 공급 역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ates, 1980; 김명일, 2009 재인용). 이러한 지속성의 원칙은 사회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ilbert와 Specht(1985)는 서비스의 비연속성(discontinuity)은 원활한 서비스 전달을 가로막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패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김명일, 2009 재인용).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사회학적 구조 변화 등에 의한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의해 돌봄 및 가족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돌봄

및 가족지원 관련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기도 하였다(최은영, 2007).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서비스 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으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서비스, 제도, 정책 등을 포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과 공공 정책간의 관련성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동보육서비스 등과 같은 가족 정책이 국가 간 여성고용의 수준과 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Stadelmann-Steffen, 2008). 또한 OECD 30개 회원국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과 아동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유럽 7개국을 대상으로 6년간의 종단 데이터(longitudinal data)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사회서비스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육아휴직의 법적보장,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oca et al., 200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보육은 공식·비공식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유럽은 주로 사회서비스를 통한 여성의 고용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시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라는 같은 주제의 연구라도 접근방식과 설명요인에 대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육서비스 지원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주로 조세 감면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제공되는 반면 유럽의 아동보육은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Richard & Schettkat, 2005).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한 아동 및 가족정책과 관련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

면, 최성은과 우석진(2009)은 보육료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보육료 지원구조는 기혼여성의 노동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의 보육료 지원이 소득구간별로 구분되어 있어 여성취업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보육료 체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현미(2005)는 1985년부터 1998년간의 OECD 1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공보육정책,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수당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보육서비스 지출이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한 아동 및 가족 관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여성의 노동시장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크게 보육서비스와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가족에게 남겨둘 것인가(재가족화, re-familization), 아니면 가족에서 사회로 이동시킬 것인가(탈가족화, de-familization)의 논의의 맥락으로 이어진다. 탈가족화는 보육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재가족화는 부모휴가, 가족수당 등을 통해 부모의 돌봄을 노동시장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최은영, 2007; 윤성호, 2008).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탈가족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아이돌보미, 아동상담, 예체능교실, 문화활동, 가정봉사서비스, 그리고 바우처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및 이동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출산휴가, 조제제도 등과 같은 재가족화 중심의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사회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속성(continuity)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아동 및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일회성 혹은 단기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단절경험 없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기혼여성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가. 기혼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영향요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와(김주영·우석진, 2010; 박현순·나동석, 2009; 오은진, 2009) 일정수준의 연령대까지는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는 연구가 혼재해 있다(최성은·우석진, 2009). 정성미(200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연령계급 변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 근로자 평균 연령인 약 30세까지는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수미(2003)의 연구에서는 40대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취업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연령은 경제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요인이지만, 이 둘의 관련성은 선형관계로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의 관계는 연령대나 교육수준 구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은 20대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가 30대 이후 낮아지고, 저학력 여성은 30대 이후의 경제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태희 외, 2009). 박수미(2003)의 연구에서는 40대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학력이 재취업 이행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으며, 40대의 경우 학력이 재취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대졸의 경우 고졸보다 취업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지만, 4년제 대졸자와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은진, 2009).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성 일자리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 여성의 학력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인적자본으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성미, 2006; 김주영·우석진, 2010; 박현순·나동석, 2009).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여성은 부부와 자녀 혹은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정의 기혼여성보다 재취업률이 높았으며(주무현·강민정, 2008; 은혜경, 2010 재인용), 정성미(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기혼여성에 비해 재취업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유무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월소득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재취업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경·조유현, 2001; 김주영·우석진, 2010; 박기남, 2009; Buchmann et al., 2010). 이는 배우자의 월소득이 높은 경우 남성과 여성과의 역할 분업이 이루어져 남성 중심의 일인부양자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에서(이진경·옥선화, 2009) 배우자의 소득은 취업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배우자 소득의 보충적 수단으로 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이전 직장경험은 경력이라는 인적자본요인으로서 재취업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오은진, 2009). 이전직장이 정규직인 경우보다 비정규직인 경우에 기혼여성의 취업가능성이 높다(김민경, 2003)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전직장 고용형태가 실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정성미(2006)의 연구에서는 이전직장 임금이 높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을 감소하는 반면 이전직장의 고용형태는 기혼여성의 재취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박수미(2003)의 연구에서도 취업경력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atir와 Yaishin(2008)의 연구에서는 전일제 고용 형태가 재취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주지역, 가구원수, 건강상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 거주하는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연구(주보혜, 2010)와 노동시장 참여와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최성은·우석진, 2009)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최성은·우석진, 2009),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서명선, 2002; 박현순·나동석, 2009; 최성은·우석진, 2009) 보고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은 주로 자녀출산 및 양육에 의해 발생되며(주무현·강민정, 2008; Satir & Yaish, 2008), 기혼여성의 취업연속성, 경력단절, 재취업 등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미취학자녀 여부(정성미, 2006; 박기남, 2009; 박현순·나동석, 2009; Taniguchi & Rosenfeld, 2002)가 일관성있게 제시되고 있다. 즉,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무자녀 기혼여성 혹은 학령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 비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과거직장경험 그리고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의 유의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나.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여형태의 영향요인

기혼여성의 취업유형은 주로 정규직으로의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은 낮고 임시·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으로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김민경, 2003; 정성미, 2006)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의 연령과 경제활동 참여형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은진 외, 2009). 또한 Buchmann 외(2010)의 연구에서도 연령의 증가는 전일제 취업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자본 요인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김민경, 2003; 정성미, 2006; 박현순·나동석, 2009), 저학력자(특히 고졸이하)가 근로환경과 임금수준이 낮은 비공식부문(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권태희 외, 2009).

기혼 여성의 이전직장 경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이었던 취업자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높으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은진(2009)은 기혼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이동에 결정적인 요인은 경력단절 당시 종사했던 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 다시 정규직으로의 재진입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성미(2006)의 연구에서는 이전 직장이 비정규직인 경우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기혼여성은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이 높은 기혼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형태는 전일제(full-time)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uer, 2000; Buchmann et al., 2010, 재인용). 배우자의 월소득은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 진입 모두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주영·우석

진, 2010). 이상과 같이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와 관련한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이전 직장,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 소득 등이 제시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제1차년도(2006)부터 제4차년도(2009)까지 총 4년간의 한국복지패널 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토대로 가구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를 결합(pooling)하여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0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차상위층을 포함한 빈곤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의 규모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인 조사로서(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및 가구원이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고용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년도 데이터에서 미취학아동(만 7세 미만)을 양육하는 기혼 여성을 추출하였으며, 기혼여성들의 4차년도에 걸친 경제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분석 데이터의 전체 관측치는 총 1,020개이다. 복지패널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운데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를 제외한 상용직, 임시·일용직, 미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고용주, 사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추출과정을 거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가 사회서비스 지속성, 개인 특성, 그리고 가구 특성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가능도록 하였다.

## 2. 측정도구

###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모형1의 종속변수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이며, 모형2의 종속변수는 경제활동 참여형태이다(<표 1> 참조). 모형1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경제활동참여 혹은 미참여로 구분되며, 모형2의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참여형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 그리고 미취업상태로 구성하였다.

### 나. 설명변수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개인적인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과거경제활동 참여형태이다. 연령은 대상자의 출생년도와 면접당시의 연도 간의 차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졸업 이하,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졸업, 대학교졸업이상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도·농 복합군을 포함한 중소도시로 구분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범주화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사별, 별거, 이혼을 포함하였다. 만성질환의 여부로 건강상태를 측정하였으며, 과거고용형태는 미취업, 임시·일용직, 상용직, 비임금근로로 구성하였다. 가구요인으로는 총가구원수와 배우자 월평균소득을 통제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이 사회서비스의 단절 경험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서비스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경제활동참여 여성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항목과 바우처 서비스(4차년도만 해당)를 활용하였다. 아동복지서비스 항목에는 보육시설이용, 보육비감면, 아동상담, 장애아동특별프로그램, 방과후지도, 무료급식, 학비지원, 예체능 교실, 문화활동, 가정봉사서비스가 있으며, 바우처 서비스에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

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정의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경제활동참여 여성에게 해당되는 직접적 서비스인 보육시설 이용, 아동상담, 방과후지도, 무료급식, 예체능 교실, 문화활동, 가정봉사서비스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형을 통하여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1>은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 통제 및 독립변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1. 변수정의 및 속성

구분		변수명	변수속성(변수값)
종속변수	모형1	경제활동여부	참여 = 1 미참여 = 0
	모형2	경제활동참여형태	미참여(준거집단) = 0 임시·일용직 = 1 상용직 = 2 비임금근로 = 3
통제변수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실제 연령(만 나이)
		교육	중학교졸업 이하(준거집단) = 0 고등학교졸업 = 1 전문대졸 = 2 대학교졸업 이상 = 3
		거주지역	중소도시 = 0 대도시 = 1
		배우자	무배우 = 0 유배우 = 1
		만성질환(건강상태)	없음 = 0 있음 = 1
		과거고용형태	미취업(준거집단) = 0 임시·일용직 = 1 상용직 = 2 비임금근로 = 3
	가구요인	총 가구원수	함께 동거하는 가구원수(명)
		배우자의 월 평균 소득	배우자 월평균 소득(연속변수)
독립변수		사회서비스 지속성	사회서비스 이용연수(연속변수)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구요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로지트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형태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속성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에는 STATA 1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패널로지트모형은 종속변수가 이분화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y_{it} = \begin{cases} 1, & y_{it}^* > 0 \text{인 경우} \\ 0, & y_{it}^* \leq 0 \text{인 경우} \end{cases}$$
$$y_{it}^* = \alpha + x_{it} + u_i + e_{it}$$

패널로지트분석은 오차항  $e_{it}$ 가 정규분포가 아닌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오차항  $u_i$ 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로 나뉜다. 분석모형이 확률효과 모형인지, 고정효과모형인지는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모형1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에서  $u_i$ 와  $x_{it}$  간의 공변량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5%의 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패널로지트분석을 이용하였다.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1)(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은 반복적으로 측정된 경제활동 참여형태 응답유형에 따라 상대적인 선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인을 밝힐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아래 식 (1)과 (2) 참조). 반복적으로 측정된 개인  $i$ 는 level-2 단위(clusters)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참여형태  $j$ 는

---

1) 패널데이터에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가능하다. 첫 번째는 conditional maximum likelihood 추정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패널로지트회귀분석(고정효과 모형)을 반복 추정하여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혼합모형으로 할 수 있다(민인식, 2010).

level-1 단위(nested observations)를 의미한다.  $y_{ij}$ 의 값은  $i$ 와  $j$ 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추정된 값이다.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확률효과(random effect)를 반영하면, 조건적(conditional) 확률효과  $\beta$ 는 주어진  $i$ 에 따라  $y_{ij} = c$ (경제활동형태 응답범주)에 관한 아래의 식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p_{ijc} = P(y_{ij} = c|\beta) = \frac{\exp(z_{ijc})}{1 + \sum_{h=1}^c \exp(z_{ijh})} \quad c = 2, 3, \dots, C \quad (1)$$

$$p_{ij1} = P(y_{ij} = 1|\beta) = \frac{1}{1 + \sum_{h=1}^c \exp(z_{ijh})} \quad z_{ijc} = w_{ij}\alpha_c + x_{ij}\beta_{ic} \quad (2)$$

확률추정을 나타내는  $w_{ic}$ 는  $s \times 1$  공변량 벡터(covariate vector)이며,  $x_{ij}$ 는 확률효과  $r$ 에 의해 구성되어진 벡터이다. 확률효과  $\theta_i$ 의 값은 베이저언(Bayes)추정에 의해  $\bar{\theta}_i$ 을 산출할 수 있다.

$$\bar{\theta}_i = E(\theta_i|y_i) = \frac{1}{h(y_i)} \int_{\theta} \theta_i \ell(y_i|\theta) g(\theta) d\theta \quad (3)$$

추정변량은  $V(\bar{\theta}_i|y_i) = \frac{1}{h(y_i)} \int_{\theta} (\theta_i - \bar{\theta}_i)^2 \ell(y_i|\theta) g(\theta) d\theta$ 을 포함하는 것과 유사하다. 반복적으로 관찰된 개인  $i$ 의 level-2 단위(clusters) 응답확률은 식 (3)에서 추정된 변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잔차검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참여형태 범주에 대한 오차항( $\varepsilon_{ijc}$ )은 정규 로지스틱 분포에서 이상치 변량의 차이를 포함한다(Ten Have, 1994). 그 결과, 경제활동참여형태의 변량은  $\pi^2/3$ 에 의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변량은 정규로지스틱 분포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추정된 급내상관관계(intraclass correlation)는  $r_c = \hat{\sigma}_c^2 / (\hat{\sigma}_c^2 + \pi^2/3)$ 으로 산출되며,  $\hat{\sigma}_c^2$ 는 확률절편 분포를 가정하는 level-2 단위(clusters)의 응답확률을 추정하며, 급내상관관계에 의해 추정되는 level-1의 응답변화도 함께 추정가능하게 된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및 가구 특성은 <표 2>와 같다.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1차년도를 기준으로 33.59세이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고졸 이하인 응답자는 점차 감소하며, 전문대졸 이상인 응답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47.25%,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52.75%이었으며, 유배우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만성질환의 경우, 1차년도를 기준으로 만성질환을 겪는 응답자는 3.92%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4차년도에는 약 5배 증가한 17.24%로 나타났다.

가구요인인 총 가구원수는 4인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은 1차년도 266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차년도에는 3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가구특성

구분		1차(2006): 1020명	2차(2007): 900명	3차(2008): 797명	4차(2009): 731명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연령	평균	33.59(4.56)	34.56(4.61)	34.83(4.85)	34.75(4.58)
	교육수준	중졸 이하	51(5.00)	35(3.89)	29(3.64)	25(3.42)
		고졸	507(49.71)	444(49.33)	362(45.42)	304(41.59)
		전문대졸	172(16.86)	169(18.78)	174(21.83)	178(24.35)
		대졸 이상	290(28.43)	252(28.00)	232(29.11)	224(30.64)
	지역	대도시	482(47.25)	424(47.11)	383(48.06)	356(48.70)
		중소도시	538(52.75)	476(52.89)	414(51.94)	375(51.30)
	배우자	없음	40(3.92)	29(3.22)	28(3.51)	24(3.28)
		있음	980(96.08)	871(96.78)	769(96.49)	707(96.72)
	만성질환	없음	967(94.8)	822(91.33)	684(85.82)	605(82.76)
있음		53(5.20)	78(8.67)	113(14.18)	126(17.24)	
가구 요인	총 가구원 수	3인	304(29.83)	270(30.00)	238(29.86)	219(29.96)
		4인	521(51.13)	447(49.67)	387(48.56)	357(48.84)
		5인 이상	194(19.04)	183(20.33)	172(21.58)	155(21.20)
	월평균배우자소득	평균	266(160.20)	310(316.52)	347(291.92)	358(209.85)

연도별 서비스이용여부 및 사회서비스 지속성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3>과 <표 4>와 같다. 서비스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차년도에는 20.31%이며,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자가 증가하여 4차년도에는 3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지속성과 관련하여(<표 4> 참조) 사회서비스를 1년간 이용한 응답자는 70.95%, 2년간 이용 18.43%, 3년간 이용 9.71%, 그리고 4년 모두 이용한 응답자는 1.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1차(2006): 1020명	2차(2007): 900명	3차(2008): 797명	4차(2009): 731명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 (1년 단위)	없음	812(79.69)	610(67.78)	542(68.01)	488(66.35)
	있음	207(20.31)	290(32.22)	255(31.99)	246(33.65)

표 4. 사회서비스 지속성

사회서비스 지속성	1년	2년	3년	4년
	720(70.95)	188(18.43)	99(9.71)	11(1.08)

분석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및 참여형태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우선 과거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상용직 54.36%, 임시·일용직 30.61%로 대다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비참여자는 71.93%(1차년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차년도에는 6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이라 볼 수 있는 경제활동참여형태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상용직 12.56%, 임시일용직이 13.14%, 비임금근로 2.36%이다.

기혼여성의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패턴을 살펴본 결과, 과거 경제활동 참여자의 비율은 80% 이상이나, 현재 경제활동 참여자는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결혼과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경제활동에 재진입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이재열, 1996; 민희철 외, 2007; 황수경 외, 2008).

표 5. 연도별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형태

구분		1차(2006): 1020명	2차(2007): 900명	3차(2008): 797명	4차(2009): 731명
과거경제활동 참여형태	경제활동 경험없음	138(13.54)	111(12.78)	134(16.81)	127(17.37)
	상용직	554(54.36)	494(62.67)	418(64.99)	437(68.89)
	임시·일용	312(30.61)	197(21.89)	105(13.17)	112(13.17)
	비임금근로	15(1.47)	24(2.67)	40(5.02)	25(3.42)
경제활동 참여여부	비참여	733(71.93)	636(70.67)	523(65.62)	468(64.02)
	참여	286(28.07)	264(29.33)	274(34.38)	263(35.98)
경제활동 참여형태	미취업	733(71.93)	636(72.76)	523(65.62)	468(64.02)
	상용직	128(12.56)	146(16.44)	143(17.94)	139(19.02)
	임시일용	134(13.14)	80(8.89)	82(10.29)	97(13.27)
	비임금근로	24(2.36)	36(4.0)	49(6.15)	27(3.69)

경제활동참여 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속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평균 사회서비스의 지속성은 미취업자 1.4년, 상용직 1.39년, 임시일용직 1.51년, 비임금근로 1.44년이며, 집단 간 서비스 지속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01$ ).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경제활동참여 형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이 1년 정도 지속하였으며, 임시일용직과 비임금근로인 경우에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경제활동참여 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속성

구분	전체	평균 지속시간	1년	2년	3년	4년	F
미취업	639 (100)	1.41	452 (70.74)	126 (19.72)	56 (8.76)	5 (0.78)	28.68***
상용직	121 (100)	1.39	88 (72.73)	19 (15.70)	13 (10.74)	1 (0.83)	
임시·일용직	184 (100)	1.51	125 (67.93)	29 (15.76)	25 (13.59)	5 (2.72)	
비임금근로	54 (100)	1.44	35 (64.81)	14 (25.93)	5 (9.26)	-	

\* $p<.05$ , \*\* $p<.01$ , \*\*\* $p<.001$

## 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지속성( $p<.001$ ), 연령( $p<.001$ ), 교육수준( $p<.05$ ), 거주지역( $p<.05$ ), 배우자 유무( $p<.005$ ), 과거고용형태( $p<.01$ ), 월평균 배우자 소득( $p<.001$ )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여부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기혼여성인 경우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졸업자인 경우,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과거 경제활동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단위당 변화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경제활동에 참여할 승산은 2.1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그리고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할 승산이 1.13배 증가하며( $p<.001$ ), 교육수준에서는 중학교졸업이하에 비하여 4년제 대졸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승산이 4.53배 증가하였다( $p<.05$ ). 그리고 중소도시에 비하여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승산이 1.63배이며( $p<.05$ ), 이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요인에서는 무배우자인 여성이 유배우자인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승산이 0.0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과거의 고용형태에서는 고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할 승산은 상용직일 경우 1.631배( $p<.05$ ), 임시·일용직일 경우 6.71배( $p<.001$ ), 비임금근로일 경우 2.68배( $p<.001$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직장경험이 있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배우자 월평균소득의 한 단위 증가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여 승산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결론적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사회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일가족 양립정책에 따라 여성경제활동참여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수미, 2002; Drobnic et al., 1999).

표 7.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 분석결과

구분		Coef	S.E	exp(b)	z-value
연령		0.129***	0.024	1.13	5.24
교육수준 (중학교졸업 이하)	고등학교졸업	0.681	0.512	1.97	1.33
	전문대졸업	1.189	0.560	3.28	2.12
	대졸 이상	1.511*	0.547	4.53	2.76
거주지역(중소도시)		0.489*	0.213	1.63	2.30
배우자		-3.151***	0.529	0.04	-5.95
건강상태		0.330	0.241	1.39	1.37
과거고용형태 (미취업)	상용직	0.489**	0.212	1.63	2.30
	임시·일용직	1.904**	0.224	6.71	8.48
	비임금근로	0.986***	0.207	2.68	4.75
총 가구원 수		-0.172	0.122	0.84	-1.41
월평균 배우자 소득		0.003***	0.001	1.00	7.31
서비스지속성		0.778***	0.113	2.17	6.86
상수항		-6.308	1.25	-	-5.03
/lnsig2u		2.112	0.177	1.423	-
sigma_u		2.876	0.255	2.038	-
rho		0.715	0.036	0.558	-
N		3447			
number of groups		1324			
Wald chi <sup>2</sup> (13)		257.51***			
Log likelihood		-1523.27			

\*p<.05, \*\*p<.01, \*\*\*p<.001

주1: ( ) 준거집단

### 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형태 결정요인 분석

다음으로는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서비스의 지속성의 경우, 이용연수가 증가할수록 미취업에 비하여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에서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이 높았지만( $p<.001$ ), 미취업에 비하여 상용직일 경우 서비스지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는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혼여성들이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시키지만, 상용직으로의 취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배우자, 거주지역, 과거고용형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소득만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에 비하여 전문대졸과 대학교 졸업 이상일 경우, 미취업에 비해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p<.001$ ). 하지만 교육수준은 비임금근로와 임시·일용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 무배우자인 경우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p<.001$ ). 중소도시에 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미취업보다는 비임금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p<.05$ ). 과거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은 현재 미취업 상태이기 보다는 임시일용직, 상용직, 그리고 비임금근로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 점은 과거 고용형태가 상용직인 기혼여성이 현재 임시일용직이기 보다는 미취업 상태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p<.001$ ). 가구요인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미취업에 비하여 상용직과 비임금근로일 가능성이 높았다( $p<.00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연령, 교육수준, 지역, 과거경제활동참여형태, 배우자월평균소득, 사회서비스지속성이 경제활동형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퍼센트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준거집단을 미취업 집단으로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취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과거고용형태, 월평균배우자소득, 서비스지속성이다.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상용직이 될 가능성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자에 비해 전문대졸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이 상용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각각 299.2%, 26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배우자인 기혼여성이 상용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65.4% 증가하였다. 과거 직장경력이 없는 집단보다 과거 직장경력이 있는 집단이 상용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상용직, 임시·비정규직, 비임금근로 모두 1,000% 이상 높았으며, 이를 통해 과거 직장경험이 현재의 경제활동참여형태의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배우자 소득이 높을수록 상용직으로 취업할 가능

성은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이용연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미취업 가능성은 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같은 노동강도가 높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미취학자녀를 둘 경우,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조혜선, 2002; 황수경 외, 2008; 김진욱, 2009).

둘째, 미취업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임금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지역, 과거고용형태, 월평균배우자소득,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비임금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미취업에 남아있을 가능성보다 1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비임금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72% 증가하였다. 과거고용형태가 상용직인 경우 상용직으로 재입할 가능성은 593.8%, 비임금근로로 재취업할 가능성은 30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시·일용직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경제활동단절을 경험하며 이후 경제활동참여형태는 비임금근로형태가 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으로 참여한다는 선행연구결과(권혜자, 2008)와 일치한다. 월평균배우자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비임금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은 0.2% 증가하였다. 서비스지속성의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연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비임금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취업대비 임시·일용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배우자, 과거고용형태, 서비스지속성이다.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은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인 미취업과 대비하였을 때,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미취업에 속할 가능성보다 81.5% 높았다. 과거고용형태가 임시·일용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참여형태는 임시·일용직일수록 1,161.9%, 비임금근로에 종사하였을 경우 3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과거고용형태가 상용직일 경우,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78.6% 낮아졌다. 서비스지속성의 경우, 서비스 이용연수가 증가할수록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84.2%로 높아졌다.

표 8. 경제활동참여 형태 분석

구분	상용직/미취업				비임금근로/미취업				임사일용직/미취업				
	b	Robust SE	percent change (%)	exp(b)	b	Robust SE	percent change (%)	exp(b)	b	Robust SE	percent change (%)	exp(b)	
연령	0.050***	0.015	5.2	1.057	0.128***	0.025	13.7	1.137	0.059***	0.014	6.1	1.061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0.737	0.468	109.1	2.091	0.037	0.526	-50.4	1.037	0.557	0.341	74.6	1.746
	전문대 졸업	1.384**	0.486	299.2	3.992	-0.125	0.621	-11.8	0.881	0.448	0.386	56.5	1.565
	4년제대졸 이상	1.293**	0.488	264.5	3.645	0.666	0.581	94.7	1.946	0.259	0.396	29.6	1.295
지역(중소도시)	0.165	0.137	18.0	1.179	0.542*	0.249	72.0	1.720	0.235	0.140	29.6	1.266	
배우자	-1.062***	0.314	-65.4	0.345	0.303	0.705	35.5	1.057	-1.689***	0.271	-81.5	0.184	
건강상태(만성질환)	-0.078	0.212	-7.5	0.924	0.460	0.303	58.4	1.5842	0.162	0.204	17.6	1.176	
과거 고용 형태	임사일용	3.907***	0.213	4875.6	49.75	-0.908	0.739	-59.7	0.403	2.535***	0.156	1161.9	12.61
	상용직	2.624***	0.229	1279.6	13.795	1.937***	0.202	593.8	6.938	-1.540***	0.465	-78.6	0.214
	비임금근로	2.713***	0.224	1408.4	15.083	1.624***	0.265	407.8	5.078	1.534***	0.161	364.1	1.534
총 가구원 수	-0.100	0.089	-9.5	0.904	-0.056	0.131	-5.5	0.945	-0.024	0.087	-2.4	0.975	
월평균배우자소득	0.371***	0.086	0.4	1.037	0.233**	0.076	0.2	1.023	0.115	0.010	0.1	1.012	
서비스지속성	-0.4374***	0.107	-8.1	1.544	0.518***	0.113	8.8	1.679	0.610***	0.083	84.2	1.841	
상수항	-6.717***	0.836	-	-	-10.477***	1.496	-	-	-4.497***	0.812	-	-	
N	2,941												
number of groups	1188												
Wald chi <sup>2</sup> (39)	840.72***												
pseudo R <sup>2</sup>	0.241												
Log pseudo likelihood	-2429.0753												

\*p<.05, \*\*p<.01, \*\*\*p<.001

## V. 결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가성장잠재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장지연·부가청, 2003; 김미경·송다영, 2002; 최은영, 2008; 윤성호, 2008; 허수연,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부터 4차년도(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지스틱 회귀모형(pane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지속성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혼합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미취업에 비해 상용직, 비임금근로,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p<.001$ ). 교육수준에서는 중학교졸업 이하인 응답자에 이하에 비해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승산이 높으며, 참여형태에서는 상용직에서만 교육수준이 유의미하였다( $p<.001$ ).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인 경우 경제활동참여를 할 승산이 높았다( $p<.001$ ).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임금근로일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p<.05$ ). 과거 고용형태에서는 고용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p<.001$ ). 현재, 상용직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과거고용형태는 상용직, 비임금근로일 가능성이 컸으나, 과거 고용형태가 임시·일용직인 경우에는 현재 미취업 상태일 가능성이 컸다. 과거고용경험이 있을 경우에 현재 비임금근로와 임시·일용직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컸다( $p<.001$ ). 이는 기혼여성의 과거 노동시장경험이 출산이후 경제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Chang(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가구요인에서는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p < .001$ ).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경제활동참여보다는 가사와 양육에 전담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장지연·김지경, 2001; 김지경·조유현, 2001)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하지만 Esping-Andersen(2009)은 고학력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고학력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반면, 저학력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는 여성은 비슷한 계층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는 현상이 뚜렷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가 고소득인 여성 역시 고소득의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재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가 저소득인 여성은 저소득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Esping-Andersen의 주장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 및 형태에 대한 배우자의 소득수준의 영향력은 향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연수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가능성이 높았으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형태로는 비임금근로와 임시·일용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p < .001$ ). 하지만 상용직인 경우에는 서비스지속성이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적용범위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하며, 정책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허수연, 2010).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및 기혼여성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이나 노동시장 재진입 실패로 인한 가정과 사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세부 계층으로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안팎의 여성을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지속성의 효과는 경제활동 참여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비임금근로 및 임시·비정규직 여성으로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긍정적인 반면 상용직으로의 취업에

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이 열악한 저임금 및 저숙련의 유자녀 기혼여성에게는 사회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활동참여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반면, 상용직에 종사하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은 미취업 여성보다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서비스는 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여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종이나 계층의 기혼여성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사회서비스의 불충분성 및 접근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여러 취약계층(여성가구주, 장애 여성, 빈곤 여성 등)으로 구분하여 선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노동시장 안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속하는 여성을 하나의 계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기혼여성의 취업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혹은 경력단절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아동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졌어도 연령이 낮은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은 기혼여성의 경우 보육과 양육문제가 노동시장 진입의 가장 큰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김주영·우석진, 2010).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재진입하는 경우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약 10%의 월 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주무현·강민정, 2008),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상태로의 전환이 어려워진다(장지연·김지경, 2001; 오은진, 2009). 따라서 24개월 미만 유아를 위한 고용친화적인 직장 및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탄력근무제와 같은 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부모 가정의 기혼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주로 자영업과 같은 비임금 근로보다는 주로 상용직 혹은 임시직과 같은 임금근로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재취업에서 나타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 감소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증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김주영·우석진, 2010). 한부모 가정의 기혼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가사와 자녀양육에서의 절대적인 시간 부족, 이로 인한 갈등과 긴장을 겪게 된다(유계숙·정현숙, 2002; 김혜선·김은하, 2008). 그러

므로 한부모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접목시킨 서비스 기반체계 구축, 평생교육의 제공, 한부모 여성을 위한 특화되고 전문적인 일-가정양립 서비스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일-가정 양립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윈스톱 취업지원기관인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간 및 세대간 비공식적 지원이 언급되고 있다(장지연·김지경, 2001; 김지경, 2004; 주보혜,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을 둘러싼 가족관계 및 사회적 자본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김경옥, 2007; Stadelmann-Steffen, 2008). 현재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예비노동력으로서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였다가 불경기에는 다시 퇴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주무현·강민정, 2008). 또한 한 국가의 정치적, 사회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여성 개인의 취업뿐만 아니라 여성노동 관련 공공정책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adelmann-Steffen, 2008).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공공부문 고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포함한 보다 거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다루지지 않았던 ‘사회서비스 지속성’에 주목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이 진행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왔던 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권태희, 조동훈, 조준모(2009). 한국 비공식 노동시장의 여성인적자원 실태분석. 여성연구, 76(1), pp.71-109.
- 권혜자(2008). 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은가?. 노동사회, 3월호, pp.11-22.
- 김명일(2009).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노인의 삶의 질 변화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대학원, 연세대학교, 서울.
- 김미경, 송다영(2002).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민경(2003). 정규·비정규직으로의 미취업 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고용형태별 및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 김영옥(2002).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 - 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2), pp.5-40.
- \_\_\_\_\_(2007).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젠더리뷰, 5, pp.14-23.
- 김은정(2008).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사회복지정책, 35, pp.141-168.
- 김주영, 우석진(2010).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경, 조유현(2001).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pp.15-24.
- 김지경(2004). 젊은 여성의 첫 출산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 42(3), pp.91-104.
- 김진옥(2009).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부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7(3), pp.51-72.
- 김혜선, 김은하(2008).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387-391.
- 김현미(2005). 양육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민인식, 최필선(2009). STATA 패널데이터분석. 서울: 한국 STATA학회.

- 민인식(2010). STATA를 이용한 패널분석 방법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회 여성가족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479-500.
- 민희철, 우석진, 김현숙, 김혜원, 류덕현, 옥우석(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한국여성학,  
25(2), pp.37-71.
-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  
사회학, 36(2), pp.145-174.
- 박수미(2003). 한국 여성들의 두 번째 노동시장이행에 대한 중단적 연구. 한국여성,  
19(1), pp.43-89.
- 박현순, 나동석(2009). 한부모여성과 기혼여성의 취업관련요인 비교연구: 고정된 변수  
(Fixed Variables)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4), pp.263-290.
- 서명선(2002). 도시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  
화여자대학교, 서울.
- 성규탁(1993). 사회복지행정론. 경기: 법문사.
- 오은진, 박성정,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2008). 경력단절여성 취업육구 조사연구.  
여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2009). 경력단절연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및 경로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 오은진, 민현주, 김지현(2009).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선택  
결정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pp.141-162.
- 유계숙, 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pp.39-27.
- 윤성호(2008). 아동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여성의 임금수준과 전일제 고용에 미치는 영  
향. 한국가족복지학, 25, pp.201-236.
- 은혜경(2010).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  
울.
- 이재열(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0), pp.1-45.

- 이진경, 옥선화(2009).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한국조사연구학, 10(3), pp.59-83.
- 장원봉(2010).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62, pp.42-56.
- 장지연, 김지경(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노동패널학회 자료집.
- 장지연, 부가칭(2003).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65(2), pp.149-179.
- 전은주, 유홍준(2009). 첫 자녀 출산 후 여성의 취업여부 및 직장복귀에 관한 결정요인. 한국사회, 10(1), pp.183-223.
- 정경희, 이현주, 박세경, 김영순, 최은영, 이윤경, 최현수, 방효정(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성미(2006). 여성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노동리뷰, 2006(3), pp.39-50.
- 조혜선(200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가족과 노동의 접합. 한국사회학, 26(1), pp.145-169.
- 주무현, 강민정(2008). 기혼여성, 경력단절의 경제적 효과와 직업선택.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주보혜(2010).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가 여성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최성은, 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재, 남기민(2008). 사회복지행정론. 경기: 나남출판.
- 최은영(200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선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62, pp.23-36.
- \_\_\_\_\_(2008).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pp.15-34.
- 한국노동연구원(2009). OECD국가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노동리뷰, 72, pp.69-7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9).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허수연(2010). 복지국가의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비교연구: 가족정책과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홍정립(2009).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변동분해: 1998-2007.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 김훈, 김인선, 성지미, 유계숙(2008).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에서 인출.
- Bauer, T.(2000). *Die Familienfalle. Wie und warum sich die Familiensituation für Frauen und Männer unterschiedlich auf die Erwerbsbiographie auswirkt - eine ökonomische Analyse*. Chur/Zürich: Rüegger.
- Boca, D. D., Pasqua, S., Proznato, C.(2009). Motherhood and market work decisions. *Oxford Economic Papers*, 61, pp.147-171.
- Buchmann, M. C., Kriesi, I., Sacchi, S.(2010). Labour market structures and women's employment level.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4(2), pp.279-299.
- Chang, J.(1996).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Univ. of Wisconsin.
- Drobnic, S., Blossfeld, H., Rohwer, G.(1999). Dynamics of Women's Employment Patterns over the Family Life Course: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pp.133-146.
- Esping-Andersen, A.(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Pol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2007). *Social protection in EU: Social service of general interest feedback report to the 2006 Questionnaire of social protection committee*.
- Gates, B. L.(1980). *Social program Administr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 Gilbert, N., Specht, H.(1985).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Hall.
- Satier, H., Yaish, M.(2008). The determinants of women's employment dynamics: The case of Israeli wome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3), pp.363-377,
- Stadelmann-Steffen(2008). Women, Labour, and Public Policy: Female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Policy*, 37(3), pp.383-408.
- Taniguchi, H., Rosenfeld, R. A.(2002). Women's employment exit and re-entry: Differences among Whites, Blacks, and Hispanics. *Social Science Research*, 31, pp.432-471.
- Ten Have TR, Uttal DH(1994). Subject-specific and population-averaged continuation ratio logit models for multiple discrete time survival profiles. *Applied Statistics*, 43, pp.371-384.

진선미는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이며,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전공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 사회서비스,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에 관심이 있다.

(E-mail: momo850908@hanmail.net)

강은나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조직운영, 사회적 기업 등이다.

(E-mail: keunna@hanmail.net)

장용석은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노인복지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mail: cortigiano@gmail.com)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Patterns

: Using a 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Jin, Sun-Mi**

(Yonsei University)

**Kang, Eun Na**

(Yonsei University)

**Jang, Yong-Seok**

(Yonsei University)

---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status.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1,02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a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2006) to the fourth wave of KWPS(2009). As statistical methods, Panel Logit Analysis and 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test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their employment patter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With relation to employment status,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mployed and temporary/irregular job status and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gular job status. Second,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s determined by age, education, spouse's monthly income, living location, and previous occupations. Third,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education level, spouse's monthly income, and previous occupations.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

**Keywords:** Social Service Continuity, Labor Force Participation, Employment Patterns, Panel Logit Analysis, 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